

■ 사진으로 보는 동네 소식



대연1동 대연1동 새마을문고와 자원봉사캠프는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어르신 50분에 사탕카네이션과 부식 등 성품을 전달했다.



대연1동 본죽 본사로(대연점 김웅희)는 전국 매장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한 '사랑죽릴레이 상품권' (48만원)을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했다.



대연3동 대연3동 새마을자율방역단(회장 이태형)은 대연3동 전역과 대학가에 코로나19살균방역과 하절기 모기방제 방역을 실시했다.



대연6동 대연6동 통장협의회(회장 한단향)는 지난 4월 24일 이웃돕기성품을 마련해 관내 어려운 세대를 방문해 성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대연6동 대연6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수균)는 취약계층 2세대에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사랑의 계좌 후원금(각 20만원)을 전달했다.



용호1동 디딤돌봉사단용호1동캠프단(회장 권경옥)은 5월 1일 직접 제작한 카네이션과 사랑방 200개를 행정복지센터 방문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용호3동 용호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문수녀)는 슈퍼마켓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슈퍼마켓 돌보미사업'을 추진하였다.



용호3동 부산시중앙신협(이사장 양철성)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마스크 1,000개를 용호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동네 구석구석 누비는 전천후 봉사꾼

용당동 오승용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용당동에는 동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승용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이 있다. 그는 올해 48세로 나이만 젊은 것이 아니라 봉사 감각까지 젊고 활기차다.

그는 2010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으로 가입해 11년째 꾸준히 활동하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일꾼으로 자리를 굳혀왔다.

그가 회장으로 있는 용당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제주 많고 열정이 넘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덕분에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동네 공터에 국화를 심어 꽃길을 가꾸는 일부터 천장형 소화기를 구입해 혼자 계신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정을 일일

이 방문해 직접 설치하는 일까지 그들의 손이 닿지 않은 일이 없다. 아직 연탄을 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600장을 날라 집에 차곡차곡 쌓아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용당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축구 골대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동네 이웃들이 불편해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원들이 가진 기술과 재능으로 똑딱똑딱 고쳐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야말로 용당의 맥가이버들이다.

연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자랑하는 그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8년 전준장을 가진 어르신이 계단으로 된 길을 휠체어로 힘들게 다니는 것을 보고 회원들과 합심해 나무데크로 경사진 통로를 만들어드린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

그의 목공기술과 용접술이 요긴하게 쓰였다. 작업 중에 손을 다쳐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정말 고마워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때의 일을 계기로 그 어르신의 아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이 되어 같이 봉사를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냐는 그의 말에 저절로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2018년 회장으로 취임 후, 용당의 상권 활성화, 주민 화합과 안부를 위한 일들을 궁리했다.

지하차도 공사로 업장을 강서구로 옮겼다는 그에게 어떻게 그 멀리 계신 분이 이렇게 활발한 봉사활동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좋은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눴을 배가 되고,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거뜬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봉사활동으로 알게 되었다. 내가 조금만 더하면 내 이웃의 어르신, 아이들이 더 편하게 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꾸만 욕심을 내게 된다.”며 그는 웃었다. 진심이 느껴지는 그의



말에 남구 주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매년 김장을 해 이웃과 나누고, 동네 어르신을 모시고 점심도 대접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이 묶였다는 그는 어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가을에는 어르신들 모시고 다 함께 모여 동네 잔치를 한 판 열고 싶다고 한다.

KT&G, 남구 어린이에 상상나눔 도시락 전달



KT&G 부산본부(본부장 김정호)는 지난 5월 7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상상나눔 도시락을 남구에 전달했다.

‘상상나눔 도시락’은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시설 운영 중단 장기화로 급식의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도시락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KT&G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인 상상펀드로 마련되었으며,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조성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도시락은 600명의 남구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다.

대연동 오렌지카라멜 방송출연 우승상품 기탁

대연동 공동체하우스 ‘일오집’에 사는 30~40대로 구성된 ‘대연동 오렌지카라멜(강수운, 김한수, 윤창환, 조영제)’은 KBS1 TV ‘노래가 좋아’ 출연 1승 상품으로 받은 안마의자를 지난 5월 12일 남구에 기탁했다. 대연동 오렌지카라멜은 2019년 전국노래자랑 ‘부산남구편’에 출연한 팀으로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해 KBS1 TV ‘노래가 좋아’에 출연해 1승을 했다. 기탁자들은 “가족들에게 재미있는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참여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1승을 하게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싶어 우승 상품을 기탁하게 되었다. 안마의자가 필요한 우리 이웃



들에게 유용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고 뜻을 전했다. 기탁한 안마의자는 남구장애인복지관에 전달되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캠페인 전개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회장 이은봉)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

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총 8회에 걸쳐 대학로 상가밀집지역을 방역했다. 바르게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버스정류장, 상가 문손잡이, 야외벤치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완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에 앞장섰다. 또한 일상 속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새마을운동남구지회 마스크 6,500매 기탁

새마을운동남구지회(지회장 김태우)는 지난 4월 9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드교체형 수제 면마스크 6,500매를 남구에 전달하였다. 이 마스크는 총 40여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지난 3월 26일부터 2주간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여 손수 제작되었다.



청년 예술문화 확산 및 지역주민 문화체험 공감

2020 유앤미(you&me) 토요일예술평당

부산 남구는 남구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평화공원과 대표 관광지인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관내 청년 예술인들의 체험형 예술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앤미(you&me) 토요일예술평당’을 개최합니다.

□ 운영 일정

시기	6월	7월	8월	9월	10월
	13일, 20일	4일, 18일	8일, 22일	5일, 19일	17일, 18일
횟수	2회	2회	2회	2회	2회
장소	○ 6.20.(토), 7.18.(토) :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장 ○ 그 외 : 평화공원 일원				

※ 현장여건(우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체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주요 내용
페이스 페인팅	전용물감으로 얼굴, 손에 캐릭터 페인팅
슈링클스 열식고리	슈링클스(종이) 도안작업 및 오븐 굽기
(빨대를 이용한)불어서 그림 그리기	빨대를 이용해 육단지나 한지에 그림그리기
추상화 그리기(feat : 분무기)	찰흙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종이 위에 붙인 후 분무기를 뿌려 찰흙모양(형태가 정해져 있는 차가운 추상)과 그 외 모양(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는 뜨거운 추상)그리기
리사이클링아트 작품전시 및 체험	버려진 물건 재활용하여 만든 작품 전시 및 만들기
오프룸 위빙(Off-loom Weaving)체험	여러 가지 색의 털실과 양모를 재료로 오프룸 위빙을 활용한 벽걸이 장식 만들기 체험

※ 불어서 그림 그리기와 추상화 그리기 교차 시행

생활속 문화, 행복한 일상

2020 남구 문화가 있는 날

-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

남구는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보다 쉽게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과에 지친 직장인들이 잠시나마 피로를 풀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여 ‘생활 속 문화, 행복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문화가 있는 날」을 개최합니다.

일시	장소	내용
6.26(금) 16 : 00	UN평화공원	○ 주제 : 「나라사랑 보훈 음악회」 ○ 출연 : 오페라연합회 남구문화원 색소폰동아리 코랄데오 브라스밴드
7.31(금) 11 : 00	우암동 소마마을	○ 주제 : 「역사문화 음악회」 ○ 출연 : 퓨전국악그룹 별하, 남구문화원 오카리나 동아리
8.28(금) 16 : 00	감만시장	○ 주제 : 「셀러 판타지 음악회」 ○ 출연 : 통키타 가수 정현식, 트로가수 김민
9.25(금) 13 : 00	남부하수처리장 광장	○ 주제 : 「시네마 음악회」 ○ 출연 : 전자현악 걸 그룹 쉬즈, 여성국악그룹 신비 트로트 장구
10.30(금) 18 : 00	문현로타리 녹색광장	○ 주제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열린 음악회」 ○ 출연 : 남도민요, 남구문화원 통기타 동아리 리버틴크루(합창)
11.27(금) 13 : 00	남구 장애인복지관	○ 주제 : 「찾아가는 인형극&마술 콘서트」 ○ 출연 : 포루투나 앙상블(6인조) 인형극단 두드림 마술사 주호영
12.11(금) 13 : 00	남구 노인복지관	○ 주제 : 「송년 나눔 음악회」 ○ 출연 : 남구문화원 오륙도무용단 제즈가수 Bemalense, 가수 민희

※ 공연 일정은 우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화체육과 ☎607-4062